거장들의 '서권기' 만나자

동방대학원대 설립 주역 추모전… 6월 25일부터 백악미술관

일제강점기에 한국 시서화의 맥을 잇고 1956년 '동방연서회(東方硏書會)'를 창립하며 근현대 한국 서단을 이끈 영운 김용진(1878~1968), 일중 김충현(1921~2006), 여초 김응현(1927~2007) 선생 3인의 작품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전시된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는 6월 25일 오후 5시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동방 창설 삼선생 추모전'을 개최한다.

한국 서단의 거목들이자 동방대학원대학교 창립에 기여한 3인의 서예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안동 김씨 후손과 동방연서회 후학들이 소장하고 있던 희귀 작품 105점이 선보인다. 영운 서생의 '목단(牧丹)'과 '풍운산림(風雲山林)', 일중 선생의 '두시(杜詩)'와 '의식분유(衣食分有)', 여초 선생의 '도각어(陶覺語)'와 '空山落木(공산낙목)' 등 대표작은 물론 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체의 작품이 망라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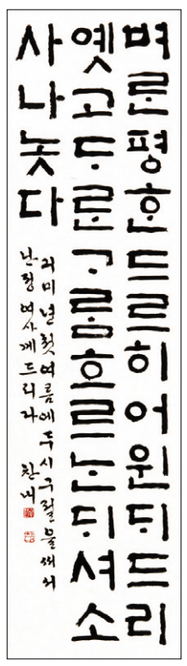
동방대학원대 이영철 교수(서화심미학과)는 "고매한 인품과 학문적 성취, 한국적 서예를 정립한 세 분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기란 흔치 않은 기회"라며 "한국 서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높은 뜻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세 선생의 작품전은 동방연서회 창립 50주년인 2007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김충현(2006), 김응현(2007년) 선생의 잇따른 타계로 미뤄지다 이번에 추모전 형태로 열리게 됐다.


영운 김용진.


일중 김충현.


여초 김응현.



김충현 作 '두시'.


김용진 作 '목단'(위)과 김응현 作 '절차탁마'.

당호인 '구룡산인(九龍山人)'으로 더 유명한 영운 선생은 일제강점 후 벼슬을 그만두고 초야에 묻혀 시·서·화로 망국의 한을 달랜 조선의 마지막 문인이다. 중국의 신문인화를 배웠지만 중봉 위주의 운필로 우리 정서와 감흥을 담아낸 서도를 후학에 전수해 오늘날 현대 문인화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일중 선생은 고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 '해서(楷書)'를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일중체(一中體)'를 완성시켰다. 옛 삼성그룹 로고 '三星', 현대그룹 로고 '現代', 태평양 '설록차' 등 휘호로 국민에게도 친숙한 글씨는 순천 송광사 대웅전, 완주 송광사 일주문 편액, 강남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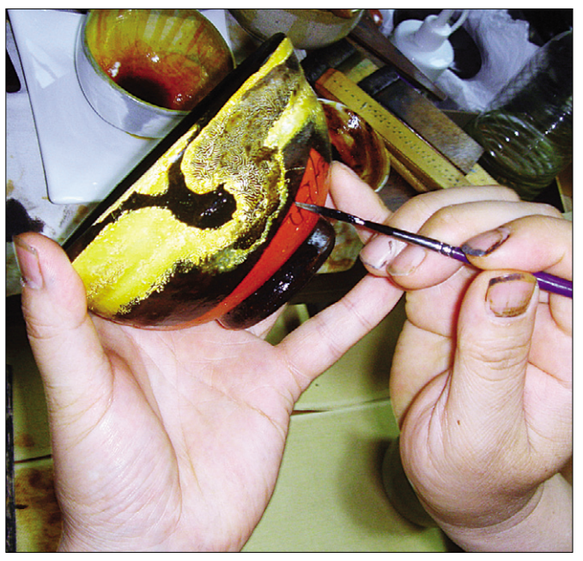
일중 선생의 친동생인 여초 선생은 동방연서회를 통해 한국 서단을 이끌어 왔다. 고고한 학을 연상시키는 기품과 웅훈함이 넘치는 필체는 중국 서단의 극찬을 받았다. 직지사, 길상사, 봉국사 등 전국 유명 사찰의 편액을 남겼다.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해 4월 북면 용대리에 '여초 김응현 서예기념관' 착공식을 갖기도 했다.

한편, 동방대학원대학교는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심우장(서울기념물 제7호)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65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02)3668-9824

김성우 기자

"황칠은 확실한 미래자원"

구영국 황칠공예 명인, 200년전 황칠 복원




첫크릇에 황칠을 칠하는 구영국 명인.

"옻칠이 천년 간다면 황칠은 만년을 간답니다. 그것은 황실과 왕실에서만 사용됐던 황칠의 뛰어난 기능과 효능 때문이지요."

'황칠(黃漆)'은 황금빛이 나는 천연 칠감(도료)으로 삼국시대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애용됐다. 황칠나무 수액에서 얻은 도료를 칠하면 금박을 입힌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금빛이 나고, 좀과 녹이 슬지 않는 황칠은 몇백년이 지나도 금빛이 유지된다. 그러나 황칠공예는 200여 년 전에 맥이 끊겼다. 백사 구영국(49·白士 具永國) 황칠공예 명인(127호)은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만의 황칠공예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아울러 황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내에 자리한 한국전통황칠연구소에서 만난 구영국 명인은 오랫동안 황칠공예가 사라졌던 이유 중 하나는 황칠의 수액 채취량이 극소량이었던데다 황칠 비법의 맥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 끊어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황칠은 그 희귀함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 조선 왕실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되고 중국 베이징 자금성의 천장, 벽, 용상 등에 황제의 명예를 높이는 데만 사용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황칠을 바치기에도 공급량이 모자라서 치자 물에 들기름을 발라 황칠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중국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황칠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초를 넣어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밤에 몰래 도끼로 아예 베어내 버리기도 했다'고 <목민심서> '산림' 편에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황칠은 황칠나무 껍질에 상처를 입혀 뽑아낸 수액으로, 유백색이던 액이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서서히 황색으로 바뀌는데 이를 정제해 만든다. 황칠나무는 거제도, 완도, 보길도, 홍도 등 남서해안과 섬 지역에서 자란다. 그러나 수령 15년이 지나야 수액 채취가 가능하고, 채취량 또한 나무당 8.6g에 지나지 않는 귀한 천연도료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식향 성분이 황칠에서 추출된다'고 적혀있다. 금박이 눈부시어 요란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황칠은 은은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빛을 낸다는 게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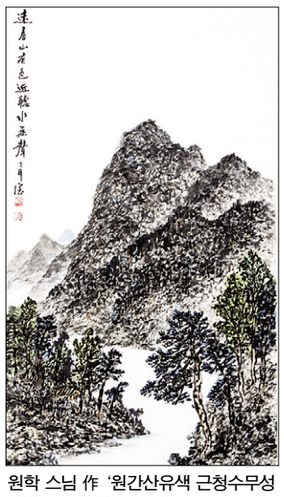
"1979년 전통공예에 입문, 1990년 이상호 선생에게 전통 칠공예를 사사해 디자인을 해오던 중 1985년 우연히 김제 금산사에서 철안 노스님이 건네주신 천연 황칠원액과의 숙명적 인연으로 인해 스님과의 약속대로 비밀리에 작업과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실패와 좌절, 단념과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황칠공예의 복원을 통해 민족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울 곳도 없었고 전수받을 곳도 없었던 황칠공예는 구영국 명인의 피나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200년간 사라졌던 단절의 아픔을 뛰어넘어 다시 찬란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구 명인의 작품은 청와대 대통령 영부인접견실 전통공예작품 제작과 MBC 드라마 '궁'의 황칠작품 제작 외에도 각종 작품 전시회를 통해 황칠공예의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02년 신미술대전 대상과 2003년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특별상을 받은 바 있는 구 명인은 4월 4~10일 초대전에 이어 전국 순회 전시회를 준비중이며, 곧 <한국의 황칠공예>란 책도 펴낼 예정이다.

구 명인은 "지구상에서 1속1종의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에, 황칠은 우리의 보물이며 미래자원이기도 하다"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황칠공예가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17)233-7698

김성우 기자


원학 스님 作 '원간산유색 근청수무성(遠看山有色 近聽水無聲)'.

원학 스님 15년만에 개인전

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은 우계 오우선 선생에게 남종화(南宗畵)를 사사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이 15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6월 29일~7월 5일 나무갤러리에서 '삼이실(三耳室) 원학 스님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한 수묵화 56점의 선향(禪香)을 음미할 수 있다. 박물관측은 "남종화의 맥을 잇고 있는 원학 스님의 그림은 담백한 수묵(水墨)과 속기(俗氣) 없는 맑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선화일체(禪畵一體)를 간직한 스님의 초대전을 통해 시·서·화의 전통을 새롭게 이해하고 바쁜 일상 속에 선심(禪心)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94년 10월 공평아트홀에서 불교신문 지령 1500호 기념초대전을 가진 이후 15년간의 공백을 깨고 6번째 개인전을 여는 원학 스님은 1977년 서울 중앙불교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스님은 불교미술제 우수상(1974), 동아미술제 입선(1980) 등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수행 틈틈이 선화일여(禪畵一如)의 정진을 계속해 왔다. (02)2011-1960

김성우 기자


원학 스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예로부터 한문 문장의 흐름을 알아 제대로 그 뜻을 새기는 힘인 문리(文理)를 터득하기 위해 화엄경을 본 사람도 초발심자경문을 새로이 독송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치밀한 명문으로 꼽힌다. 그런데, 요즈음 출간되어 나온 초발심자경문은 대부분 의역을 위주로 해서 새겨져 있어 문리를 터득하는 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 초발심자경문은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한문 문장을 새기는 순서에 의해 직역한 것이다.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체험을 통한 수행지침을 실어놓았으니 신심과 발심을 더하는 살아있는 수행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과의 법거량도 실려 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 신심명
증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3권 / 환단고기 전5권
법융선사 심명 / 선가귀감 / 법성게 / 주머니 속의 심경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기우목동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